

동 90.10.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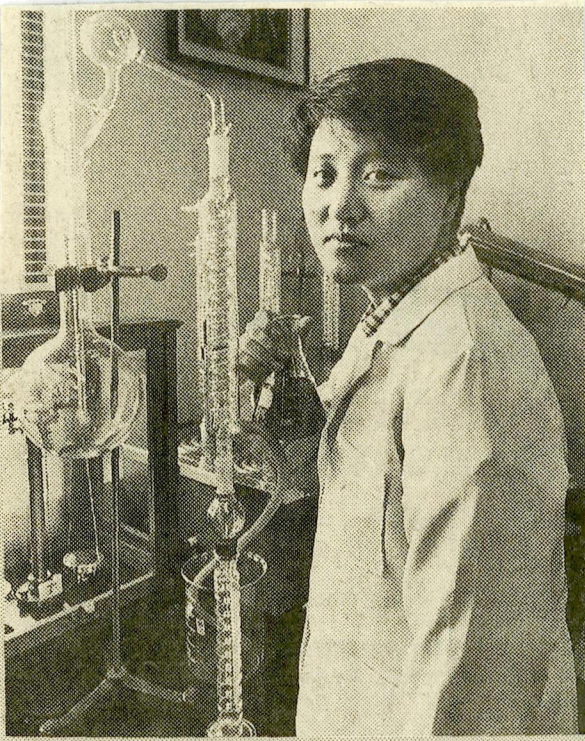
달리는 여성

환경오염 막는 처녀과수꾼

3년만에 10億매출 大盛公營 李美蘭사장

『눈코 뜰새 없이 바쁜 탓에 편한 차림을 하고 다니다보 니 가끔 「男裝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해 요』
 짧게 치장은 머리에 편한 바지차림. 특히 소년들 연상 케하는 앳된 얼굴 때문에 아 직은 사장이란 호칭을 붙이 기에 다소 어색함이 느껴지

『눈코 뜰새 없이 바쁜 탓에 편한 차림을 하고 다니다보 니 가끔 「男裝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해 요』
 짧게 치장은 머리에 편한 바지차림. 특히 소년들 연상 케하는 앳된 얼굴 때문에 아 직은 사장이란 호칭을 붙이 기에 다소 어색함이 느껴지



던 나씨는 당시로서는 관심의 「死角지대」였던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의 공부를 시작, 대학을 졸업 하던 해인 83년 환경기사(주 원오염분야) 1급 자격증을 따 냈다.
 그 뒤 某환경오염방지업체 에 취업, 4년간 일하다 87년 동료로 京畿城南에 사무실을 열어 회사를 차렸다. 8년째 종마내팔도 부문의 도공을 맡아도 있었지만 혼자 무 역이 이루어보겠다는 의 기로 환경오염방지 전문 지 역 전문도를 거둬내 왔다 고.
 4년전 당시 직원은 불과 3명. 더욱이 기업들의 환경오염방

이제 대한 인식이 낮는데다 종남이상의 기업체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탓에 악 전고투 사임을 시킨 한 첫 해에는 「그만 두어버릴까」하는 생각도 여러번 했었다는 것.
 그러나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높아 지고 발제위 일하는 나씨의 열성과 치밀한 설계능력들이

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사세가 급성장. 최근 새로 이사한 현 재의 사무실(城南 3338 8)에서는 30여명의 직원이 발동없이 일하고 있다.
 을물대 「대규모프로젝트 인 忠北機山의 농공단지 종 말처리장 설계 시공 용역을 맡아기도.

장차의 꿈은 현재 수입에의 존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 설과 악취를 직접생산하는 것. 나씨는 「환경오염을 막는 「과수꾼이므로 일어난 대로 보 람을 느낀다」며 늘려서 설계한 과 처리장이 오수처리장 점 에서 환경오염방지사업에의 승에게 더욱 적합한 시설이 라고 강조했다.

〈李東官기자〉